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과 울릉도 탈취 기도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세와키 히사토의 지도와 마쓰시마 인식
3. 세와키 히사토와 에노모토 다케야키
4. 일본 정부의 허위 공문
5. 임오군란과 일본 정부의 울릉도 탈취 기도
6. 만국공법과 조약을 둘러싼 논의
7. 맺음말

〈국문초록〉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의 제3차 울릉도(마쓰시마, 松島) 침입의 계기를 만든 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사무관을 지나는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였다. 본고는 첫째, 그가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믿게 된 기본 자료는 그가 번역한 「콜튼 씨 일본지도」임을 밝힌다. 둘째, 세와키의 권장에 따라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야키(榎本武揚) 중장의 주변사람들이 마쓰시마에서 벌목 사업을 시작했음을 밝힌다. 에노모토는 1880년에 해군 경이 되자 해군 수송선을 사용하고, 재벌 오쿠라구미를 참가시켜 마쓰시마에서의 벌목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이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발견한 조선 정부는 1881년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아울러 울릉도의 개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항의를 받은 일본 정부는 섬으로 도항한 자들은 이미 철수했다고 회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1882년에도 일본인들의 침입이 이어졌으므로 일본 정부의 회답은 허위였다. 셋째, 왜 일본 정부는 허위 회답을 보냈는지 일본의 대처를 분석한다.

* 일본 竹島=독도 연구넷 대표

조선 정부는 다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에 대해 항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의 대처하지 않았다. 넷째, 그 원인은 임오군란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이용해 마쓰시마를 탈취하려고 기도했던 것을 밝힌다. 결국 일본 정부는 마쓰시마를 탈취할만한 빌미를 만들지 못하고 마쓰시마의 영유를 포기하여 1883년 제3차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금지령을 모르고 많은 일본인들이 마쓰시마로 도항해 벌목했다. 그들을 조선 관리가 문책하자 어느 일본인은 만국공법을 거론하고 벌목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 주장은 에노모토에게서 유래한 것 같으며, 에노모토는 무주지 선점을 명분으로 하여 마쓰시마를 탈취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일본인이 주장한 내용의 번역문을 둘러싼 연구자 간 논쟁도 살펴보고, 본고는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에서 남은 과제를 해명한다.

주제어: 세와키 히사토, 「콜튼 씨 일본지도」, 에노모토 다케아키 중장, 마쓰시마=울릉도, 임오군란, 만국공법

1. 머리말

조선 개항기 일본인들은 마쓰시마라(松島)라고 칭하는 섬에 관심을 가지고 섬의 개발을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 신청자들이 말하는 마쓰시마는 에도(江戸)시대에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렀던 조선 영토 울릉도이다. 에도 시대에 마쓰시마는 독도를 가리켰는데 이처럼 섬 이름이 바뀐 것은 일본인들의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도항이 금지되어 거의 잊어진 섬이 되어 혼동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울릉도로의 도항 금지령은 일본인들의 제1차 울릉도 침입 사건, 즉 17세 ‘다케시마 일건(울릉도 쟁계)’ 때 및 제2차 울릉도 침입 사건, 즉 19세기 ‘하치에몬(八右衛門) 밀항 사건’ 때 발령되었다. 이로써 다케시마로의 도항이 끊어졌다가 에도 시대 말기부터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기입한 서양 지도의 영향을 받아 일본인들도 울릉도를 차차 마쓰시마라고 잘못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1870년 후반 마쓰시마(울릉도)에 대한 개척 원서가 제출되는 계기를 만든 자는 외무성 7등 출사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이다. 그는 청국 동

북부 근항(近港) 조사의 명을 받아,¹⁾ 1875년 4월 나가사키(長崎)를 출항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했다. 그는 배 안에서 멀리 보이는 섬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일본의 마쓰시마라고 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마자 지도를 펴보고 마쓰시마는 운슈(雲州) 북쪽에 해당하는 다케시마 옆에 있는 섬이라고 이해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미국인 코펠이라는 자는 일본 정부가 마쓰시마를 그에게 대여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²⁾ 이처럼 세와키가 본 지도는 그가 마쓰시마(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중요한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를 밝힌 선행연구는 없는 것 같으므로 본고는 첫째로 이 지도를 살펴본다.

세와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마쓰시마의 소속을 확인했다. 독일인 선장에 따르면, 이 섬은 조선에 가까우며 인가는 없지만 수목이 울창한 섬이라서 조선인들이 때때로 와서 수목을 베어 배에 싣고 돌아간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듣고도 세와키는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의심하지 않을뿐더러, 최근 러시아가 사할린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말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일본]도 고래(古來)로 부속된 마쓰시마 정도라도 열여 교역의 이익을 챙겼으면 한다”³⁾고 걱정했다.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임무를 마치고, 6월 일단 일본으로 귀국했다. 다음해 그는 무역사무관으로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부임했다. 그는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굳게 믿고, 이 섬을 개척하면 일본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

1)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國領「ボシエツト」へ派出ノ件」(1),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Ref. No. B16080698600-0345; 구양근,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한일관계사연구』 9호, 1998, 213쪽.

2) 瀨脇壽人, 『烏刺細宍斯杜屈見聞雜誌』, JACAR Ref. No. B16080698700, 0390-0391고마, 「外務省七等出仕瀨脇壽人外一名商況視察トシテ露國領「ボシエツト」へ派出ノ件」(2). 이 자료의 해제와 번역은, 구양근, 앞의 글, 212-283쪽.

3) 위의 자료, JACAR Ref. No. B16080698700-0423.

각해 주변 사람들에게 섬의 개척을 열심히 권했다. 이에 따라 나가사키 현령(縣令) 기타지마 히데도모(北島秀朝)는 1877년 7월 내무성에 「마쓰시마 개척의 일에 관한 문의(松島開拓之儀二付伺)」⁴⁾를,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 등 민간인들은 1876-1878년 세와키를 경유하여 외무성에 많은 마쓰시마 개척 원서를 제출했다.

내무성에서는 이미 다케시마(울릉도) 및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문의」를 태정관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았으므로 나가사키 현의 신청을 바로 각하했다. 한편 외무성에서는 제출된 원서를 계기로 마쓰시마라는 섬의 비정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나, 무토 등이 제출한 개척 원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페테르부르크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일본으로 귀국한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중장의 주변 사람들이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칭해 섬의 개척을 도모했다. 에노모토의 권유에 따라 치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가 1878년 마쓰시마로 시험적으로 도항했다. 이 조사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많은 일본인들이 마쓰시마로 침입해 나무를 도벌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의 제3차 울릉도 침입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송병기,⁵⁾ 박병섭⁶⁾, 송희영,⁷⁾ 박지영,⁸⁾ 유미림·박배근⁹⁾ 등이 일본인들의 침입 과정이나 조·일 간

4) 박한민,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영토해양연구』, 제23권, 2022, 29쪽.

5)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관, 2010.

6) 박병섭,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집, 2010; 朴炳涉, 「山陰地方民の鬱陵島侵入」,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30號, 2009.

7) 송희영,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 19호, 2015.

8) 박지영, 「아마구치현 주민의 울릉도 침탈사건에 대한 연구」, 『독도연구』 28호, 2020.

9) 유미림·박배근, 「1883년 태정관의 울릉도 도항금지 전후 조·일 교섭과 울릉도 도항 일본인의 법적 처리」, 『영토해양연구』, 제21호, 2021.

외교 문제 등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에노모토가 어떻게 마쓰시마를 알고 울릉도에 침입하게 되었는지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 단지 에노모토가 러시아를 왕복했을 때 마쓰시마를 알고 개척을 도모했다고 보았다. 이에 관해 박한민은 에노모토에게 세와키를 관련시켜, “에노모토의 [시베리아] 일기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체재했다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지만 세와키가 이 지역 무역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연회석상 등에서 에노모토와 만나 여러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¹⁰⁾ 이 추정이 옳다면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는 일본 정부 조직과 상관없이 울릉도에서 벌목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외무성 관리의 권유에 따라 마쓰시마의 개척을 시작했던 것이 되며, 일본인들의 마쓰시마 침입은 일본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야기했던 조선 침략 행위가 된다. 본고는 둘째로 박한민의 추정을 검증하기 위해 에노모토의 블라디보스토크 체재 중 행보나 세와키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략을 1881년에 울릉도 수토관의 보고에 의해 알게 되었다.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함과 동시에 울릉도의 개척 가능성 등을 이규원에게 조사시킬 것을 결정했다. 조선 측 항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철수했으며 금령을 내렸다고 회답했다. 그러나 1882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된 이규원은 일본인들이 목재를 운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의 서한은 허위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허위 공문을 보냈다고는 외교적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허위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뭔가 연유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셋째로 일본 정부가 마쓰시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일본 관민의 마쓰시마 도항에 대해 어떤 방침을 세워 실행했는지 분석한다.

조선 정부는 일본 측에 다시 항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의 대처하지 않았다. 본고는 넷째로 일본 정부는 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또 일본

10) 박한민, 2022, 앞의 글, 27쪽.

정부의 마쓰시마 도항자들에 대한 대처 방침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한다. 조선 측은 일본으로 파견한 수신사 박영효가 울릉도 문제를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마지못해 제3차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지령을 모르는 일본인들의 침입은 1883년에도 계속되었으며, 또다시 조선 관리에 의해 발견되었다. 관리가 그들의 침입을 문책하자, 그들은 만국 공법을 명분으로 벌목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 관리가 단호히 대응하자 일본인들은, “이 섬이 귀국 영토라는 것이 피아 정부 사이의 조약에 있으면 배편이 있는 대로 떠날 것인데”¹¹⁾ 운운이라고 대답했다. 이 글 중 ‘조약에 있으면’이라는 일본어 원문에 대해 이성환은 ‘조약이 있으므로’라고 일단 번역한 뒤 ‘조약이 있으면’이라고 해석될 경우도 분석했다.¹²⁾ 본고는 다섯째로 이성환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검토하는 등 일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사건을 둘러싸고 남은 과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월일은 주로 양력을 사용한다. 또한 인용문에서 () 안은 원문대रो이며, [] 안은 필자의 주이다.

2. 세와키 히사토의 지도와 마쓰시마 인식

세와키의 개명 전 이름은 데즈카 리쓰조(手塚律藏)다. 일찍이 데즈카는 영국인 지리학자 콜튼(G. Colton)이 1856년에 발간한 저서¹³⁾를 사바긴지로(佐波銀次郎)와 함께 번역하고 『콜튼 씨 만국도지(格爾屯氏 萬國圖誌)』¹⁴⁾를 1862년에 간행했다. 이 책에는, 「콜튼 씨 일본지도(格爾屯氏

11)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96쪽.

12) 이성환, 「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제2호, 2019, 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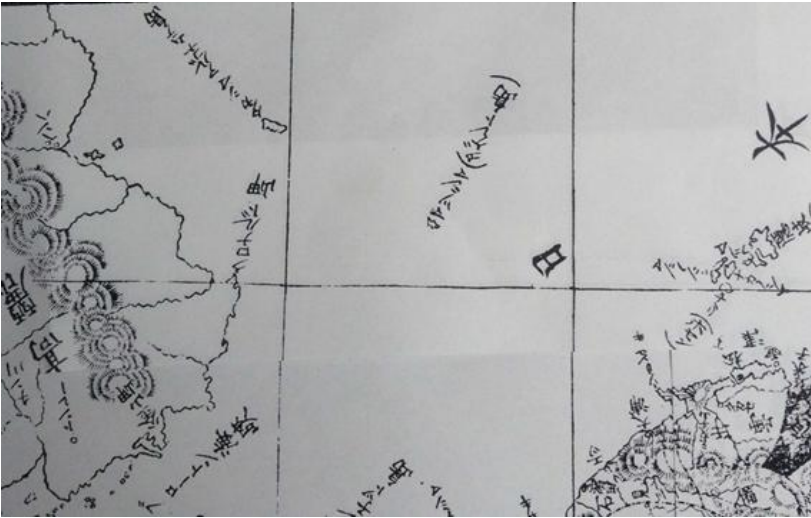
13) Colton, G. W., *Colton's Atlas of the World Illustrating Physical and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1855.

14) 手塚律藏·佐波銀治郎, 『格爾屯氏 萬國圖誌』, 1862 이 책의 복각판이 鈴木忠, 『佐

日本地圖」〈그림 1〉를 비롯하여 세계지도가 첨부되었다. 세와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가 펴본 지도는 이 「콜튼 씨 일본지도」였을 것이다. 이 지도에 마쓰시마는 〈그림 1〉 및 확대도 〈그림 2〉와 같이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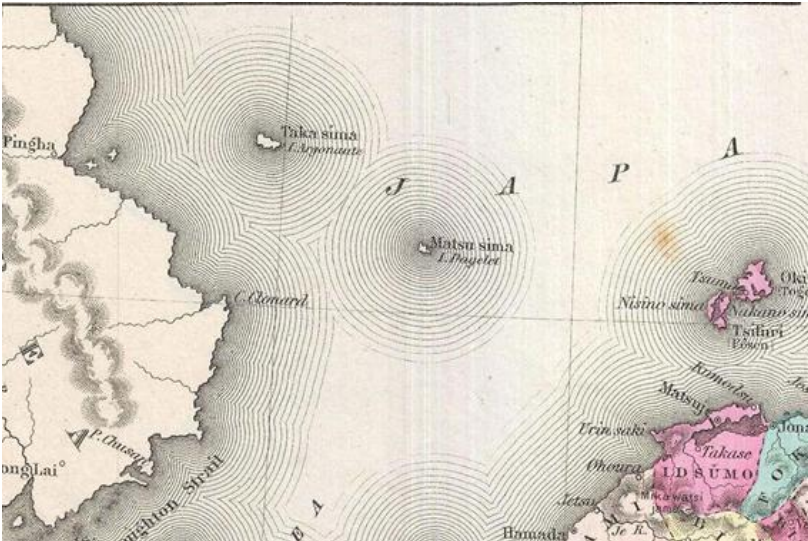


〈그림 1〉 세와키가 번역한 「콜튼 씨 일본지도(格爾屯氏 日本地圖)」



<그림 2> 마쓰시마 부근 확대도

이 확대도에 해당하는 콜튼의 원본 지도가 <그림 3>이다. 울릉도는 <그림 3>에서는 ‘Matsu sima, I. Dagelet’, <그림 2>에서는 ‘マツシマ(タゲレット島)’ 라고 표기되었다. 이 외에 존재하지 않는 섬이 <그림 3>에서는 ‘Taka sima, I. Argonaute’, <그림 2>에서는 ‘タカシマ(アルゴナム테島)’ 라고 울릉도 서북쪽에 표기되었다. 이들 지도의 계통은 지볼트(P. Siebold)가 1840년에 작성한 「일본국 지도(KARTE von JAPANISCHEN REICHE)」에 유래하며 유럽에서 널리 유포되었다. 한편 이들 지도에는 리앙쿠르 섬, 즉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다.



〈그림 3〉 콜튼 원본의 확대도

세와키는 5월 19일 조선에서 러시아로 망명한 김인승(金麟昇)을 불러 조선에 관해 필담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竹島에 관해 다음과 같이 대화했다.

[세와키] 竹島는 조선에서 몇 리나 떨어져있고 일본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김인승] 竹島는 강원도 삼척부 소속이며 섬의 주위는 천 리나 된다고 합니다. 땅은 비옥하고 산물이 많은데도 나라에서는 금도(禁島)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혹 가서 살고 싶어도 삼척영장(三陟營將)이나 월송만호(月松萬戶)의 춘추적간(春秋摘奸) 때 적발될까봐 가지 못합니다. 몇 리인지 모릅니다.¹⁵⁾

15) JACAR, 앞의 글, Ref. No. B16080698700-0436.

세와키가 물은 竹島는 <그림 2>에 있는 ‘다카시마’ 즉 존재하지 않는 섬 아르고노트를 말한 것이며, 김인승이 대답한 竹島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이 대화에서 세와키는 竹島를 조선 땅으로 이해하는 한편, 마쓰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을 것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쓰시마 개척 원서를 제출할 것을 열심히 권했다. 세와키의 권장에 따라 제출된 개척 원서 및 관련 문서는 <표 1>과 같다.¹⁶⁾

<표 1> 세와키 히사토의 권장으로 제출된 마쓰시마 개척 원서와 관련 문서

연월일	제출자	원서 제목	담당관아
1876.7.	武藤平學	松島開拓之議	외무성
1876.7.13	兒玉貞陽	建白	상동(上同)
1876.12.19	齊藤七郎兵衛	松島開島願書并建言	상동
1877.5.6	武藤平學	松島開島之建白	상동
1877.7.13	長崎縣令北島秀朝	松島開拓之儀二付伺	내무성
1878.8.15	下村輪八郎·齊藤七郎兵衛	松島開拓願	외무성

마지막 제출자인 시모무라 린파치로(下村輪八郎) 등은 1879년 6월 실제로 마쓰시마로 도항했다. 위의 담당관아 중 내무성은 이미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에 관한 조사를 1875년에 마치고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작성하고 있었으므로 두 섬이 조선 땅임을 잘 알고 있었다.¹⁷⁾ 또한 1877년에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고

16) 외무성 관계 출전은 北澤正誠, 『竹島考證』 下, 1881, JACAR Ref. No. A040172592 00, 8-19호, 번역은 정영미, 『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김수희,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독도연구』 제19호, 2015, 69-73쪽.

17)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2호, 2012, 171-172쪽.

판단하고 태정관의 재가까지 받았다. 내무성은 나가사키 현의 개척 원서가 말하는 마쓰시마는 겐로쿠(元祿)기에 일본이 영유를 포기한 다케시마(울릉도)라고 정확히 판단했으며 그 원서를 바로 각하했다. 그러나 외무성에서는 마쓰시마의 위치나 다케시마와의 관련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어났고, 많은 마쓰시마 개척 원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3. 세와키 히사토와 에노모토 다케아키

외무성이 마쓰시마 개척 원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사이에 에노모토 다케아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마쓰시마(울릉도)로 도항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야마구치(山口)현 관리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는 사건의 발단을 「복명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일본인들이 당해 섬[마쓰시마]으로 도항했던 발단은 선년 에노모토 공사가 러시아에 도항했을 때 이를 발견했는데 그분의 담화에 의거해 에노모토의 처제인 하야시 신지로(林紳二郎, 고 육군 군의 林紀의 동생), 도교부 평민 치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 이와사키(岩崎) 아무개 등이 도항을 결심해 메이지(明治) 11년[1878년]에 먼저 시험적으로 치카마쓰 마쓰지로가 기선 다카오마루(高尾丸)에 탑승해 그 섬에 건너가 일단 귀국했으며, 그 후 벌목이나 어렵에 종사한 것은 12년[1879년] 중이라고 한다.¹⁸⁾

이에 따르면 에노모토는 러시아로 도항했을 때 마쓰시마(울릉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의문이다. 에노모토는 1874년 요코하마를 출항해 홍콩·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

18) 山口県, 『蔚陵島一件録』, 山口県文書館 所蔵(行政文書 戦前 A 土木 25); 박병섭, 앞의 글, 2010, 203쪽.

다.¹⁹⁾ 따라서 그는 울릉도를 볼 수 없었다. 또한 그는 러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시베리아를 횡단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10월 4일 홋카이도(北海道) 오타루(小樽)에 도착했다. 따라서 이때도 울릉도를 볼 수 없었으므로 위의 복명서의 설명은 성립되지 않다.

에노모토가 울릉도를 알게 된 것은 1878년 귀국할 때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 무역사무관에서 세와키로부터 들었다고 짐작되는데 세와키는 에노모토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두 달 후 일본으로 귀국하는 배 안에서 병사하고 에노모토에 관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에노모토의 일기도 그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 전날인 9월 28일 한카(Khanka)호 항해 도중에서 끝났으며 세와키에 관해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 후에 에노모토가 들른 지역 이름과 시간 등을 그는 일기 표지 뒤에 메모로 썼다.²⁰⁾ 이 메모를 바탕으로 일기의 필사자인 에노모토 하루노스케(春之助, 다케아키의 차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추가하고 『시베리아 일기(西比利亞日記)』를 간행했다.²¹⁾

[28일조에 추가]

필사자가 추정하기를, 앞[서문]에 쓴 바와 같이 28일 오전 5시 한카호에 들어간 시점에서 각필(擱筆)되었는데, 대형 수첩[일기] 표지 뒤에 아래 글자가 있고 여비 명세서에서 추정하기를 한카호를 횡단해 서남 호숫가 카메니루이··[도중 생략]··즈레빈스카야를 지나[원문대로]

29일

아침 5시 니코리스크아에 도착하고··[도중 생략]··레치너이에 도착해

19) 加茂儀一, 『榎本武揚』, 中央公論社, 1988, 444쪽; 박병섭은 위의 글 203쪽에서 위의 「복명서」의 기술에 따라, “그는 실제로 울릉도 부근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의 무역사무소로 가서”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은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20) 《シベリア日記-甲》, 榎本武揚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所蔵).

https://www.ndl.go.jp/jikihitsu/part2/s1_1_25.html

21) 榎本武揚, 『シベリア日記』, 講談社, 1877; 『榎本武揚シベリヤ横断日記』, JACAR Ref. No. B12080879300 및 B12080879400.

여기에서 3시 15분 군함 아브렉스 호를 타고 30[분] 위루스토를 향해하고 5시 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 같다.

30일 블라디보스토크 체재.

10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 체재.

10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동 4일 밤 홋카이도 오타루에 도착··[도중 생략]··21일 밤 해로로 요코하마(橫濱)항에 도착. 그 날 밤 곧 도쿄(東京)에 돌아갔던 것이다.

이처럼 에노모토 다케아키 자신의 글은 9월 28일 후반부터 없기 때문에 그가 세와키와 어떻게 만났는지 일기에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에노모토 일기의 공백 기간의 행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이번 연구에서 발굴되었다. 개척사(開拓使)²²⁾가 1879년에 간행한 『블라디보스토크 기행(浦塩斯德紀行)』²³⁾이다. 이것은 때마침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던 개척사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일행의 기행이다. 이에 따르면 에노모토의 행보는 다음과 같다. 에노모토 공사는 1878년 9월 3일 세와키에게 보낸 전신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가사키 혹은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로 가는 배편을 문의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개척사가 소유하는 곤고(金剛)함이 마침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있음을 알리는 한편, 에노모토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는 날짜를 물었다. 그 후 29일 아침 6시 에노모토 공사는 니코리스크를 떠난다는 전보를 보내고 저녁 6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곤고함은 축포를 울렸으며, 에노모토는 상륙해 무역 사무관에 투숙했다. 이를 후 오후 7시 에노모토는 곤고함에 승선했다. 10월 2일 아침 6시 곤고함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하고 4일 오후 9시 20

22) 홋카이도 및 가라후토(사할린)의 개척을 목적으로 1869년에 설치된 정부 기관이며 1882년에 폐지됨.

23) 鈴木大亮, 『浦塩斯德紀行』, 開拓使, 1879, 10-47쪽.

<https://dl.ndl.go.jp/info:ndljp/pid/1874720>

분 [훗카이도] 오타루(小樽)항에 도착했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는 이미 9월 3일에는 세와키와 직접 통신하고 있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저녁까지 세와키가 책임자를 지니는 무역사무관에서 투숙했다. 당현히 에노모토는 세와키로부터 마쓰시마(울릉도) 개척의 중요성에 관해 잘 들었을 것이다. 이 일을 증명하듯이 에노모토는 10월 21일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행동에 나섰다. 마쓰시마 개척을 그의 처제 등 주변 사람 들에게 권하는 한편, 즉시 마쓰시마로 항행할 수 있는 배를 구했다. 이 계절은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범선으로는 마쓰시마로 갈 수 없으므로 구하기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증기선으로 가야 했다. 이 무렵 에노모토는 해군 중장이었다. 에노모토는 러시아 공사로 임명되었을 때 러시아와의 영토 교섭에 유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해군 중장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당시 해군에는 대장이 없고 중장이 4명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에노모토였다.²⁴⁾ 따라서 해군에서 최고 권력자인 그는 쉽게 해군 선박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앞의 야마모토 「복명서」가 기록한 다카오마루를 곧 마련했다.

그런데 야마모토 「복명서」에 기록된 다카오마루의 한자는 高尾丸인데 이 명칭을 가진 배는 1878년-1879년 『해군성 보고서』²⁵⁾ 및 민간 선박을 1881년에 기록한 『선명록(船名錄)』²⁶⁾에 없다. 한편 高尾丸과 발음이 같은 高雄丸라면 위의 두 자료 모두에 게재되어 있다. 이 수송선은 본래 해군 성 소속이었는데 1880년 3월 민간인에게 매각되었다.²⁷⁾ 이런 사실로 보아 高尾丸은 高雄丸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이 해군 선박을 타고 치카마쓰가 마쓰시마로 도항하여 섬 상황을 1878년에 조사했던 것이다.

24) 海軍省, 『海軍省報告書』, 自明治11年7月 至明治12年6月. 「第一 武文官總員」, JACAR Ref. A07062089000,

25) 海軍省, 위의 책, 「第六 艦船」.

26) 岡田利七, 『船名錄』, 丸屋善七, 1881, 20쪽.

27) 海軍省, 위의 책, 自明治12年7月 至明治13年6月, 25쪽.

이토록 에노모토가 급히 해군 선박을 마련해 마쓰시마를 조사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마쓰시마 개척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본래부터 신천지의 개척이나 식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마쓰시마에 대해 가지는 열정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되는 그의 경력을 살펴본다.

1868년 그는 에도 막부의 붕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 막부 관계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보신(戊辰)전쟁²⁸⁾에서 패배한 구 막부 가신들을 규합해 홋카이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자치정권을 수립했다. 에노모토는 구 막부 가신들의 선거에 의해 총재로 추대되자 홋카이도의 개척을 도모하고 메이지 신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신정부는 그들의 행동을 반란으로 간주했다. 다음해 6월 신정부 육군 참모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구로다 기요타카 등은 반란군을 진압했다. 에노모토는 감옥살이를 했다가 그의 재주를 아끼는 구로다의 노력으로 특별히 사면되고 메이지 신정부의 관료가 되었다. 그는 일찍이 네덜란드에 유학해 국제법이나 기관학(機關學)을 배운 적도 있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에노모토는 사면된 후 구로다 아래에서 홋카이도 개척에 관한 일을 하다가 구로다의 추천으로 러시아 공사로 임명되어 페테르부르크에 부임하고, 러시아 측과 ‘치시마(千島)·사할린 교환조약’을 조인했다. 그 후 에노모토는 오가사와라(小笠原)군도 에노모토는 오가사와라(小笠原)군도 남쪽에 있는 라도로넨(마리아나 Mariana)제도 등의 매수를 계획해 스페인과 예비 협상을 했다. 이 섬들에 일본인들을 식민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아직 귀속이 정해지지 않은 남양 섬들을 일본 영토로 삼아 이들을 거점으로 하여 인도나 호주 등에 이르는 일본의 항해사업을 성하게 만들 것을 건의한 적도 있었다.²⁹⁾

28) 1868년 초 시작된 구 막부 세력과 메이지 신정부 사이의 전쟁. 다음해 에노모토 등을 진압한 하코다테(箱館, 函館)전쟁에서 끝났다.

29) 加茂儀一, 앞의 책, 494쪽. 훗날 에노모토는 1891년에 외무대신이 되고 외무성에 ‘이민과(移民課)’를 설치했다. 또한 외무대신을 사임한 후 1893년에는 ‘식민협회(殖民協會)’를 설치하는 등 ‘이민’, ‘식민’사업을 추진했다. 출전 外務省, 「『伯

이처럼 식민이나 개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경험을 가진 에노모토는 세와키로부터 천연자원이 풍부한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듣고 이 섬에 기대를 걸고 바로 조사시켰던 것이다.

에노모토가 보낸 치카마쓰 등의 조사가 성공했는지 일본인들이, “별목과 어럽에 종사한 것은 12년[1879년] 중이라고 한다” 고 앞의 야마모토 「복명서」는 기록했다. 이 ‘12년[1879년] 중’ 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들은 1879년에는 늦은 시기에 도항했던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앞의 「松島開拓願」을 제출한 시모무라 린파치로(下村輪八郎)는 이 해 6월에 마쓰시마에서 일본인을 보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6월 11일 그는 배로 울릉도 동남부 해안에 접근하고, 상륙 지점을 찾아 동북부에 이동해서 상륙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서북부에 상륙해 섬을 조사했다. 이 동안 그는 조선 어민들과 만났으나 일본인들과는 만나지 않았다.³⁰⁾ 따라서 일본인들의 별목이나 어럽은 일러도 6월까지는 없었다. 따라서 에노모토 주변 사람들의 1879년의 어럽은 소규모이며 시험적인 어럽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노모토는 러시아에서 귀국한 후 외무성에서 ‘조약개정 취조어용과(取調御用掛)’ 로 임명되는 한편, 지학협회(地學協會) 설립에 헌신했다. 1879년 9월 그는 외무성 2등 출사(出仕)가 되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차관급인 ‘외무대보(外務大輔)’ 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에노모토는 외무성에서 요직을 지냈다면 당연히 세와키가 외무경에 건의한 마쓰시마 개척에 관해 외무성 안에서 다나베 타이치(田邊太一)등이 논쟁을 벌

刺西爾(ブラジル)との出会い」

https://www.mofa.go.jp/mofaj/annai/honsho/shiryof/j_brazil/01.html

30) 『西海新聞』 明治12年 10月 1日, 「松島日誌 前々號の續」; 松澤幹治, 「松島開拓願を出した下村輪八郎と『西海新聞』「松島日記」, 『第4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総務部, 2020, 137-138쪽. 이 신문의 10월 10일자 기사 및 松澤幹治의 앞의 글 140쪽에 따르면 시모무라 린파치로는 마쓰시마의 조사 결과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관 데라마 기이치(寺見機一) 등에게 보고하여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또한 에노모토에 대한 소개장을 받았다.

이고 있었던³¹⁾ 것 등을 알았을 것이다. 외무성 논쟁의 상황은 이를 분석한 호리 가즈오(堀和生)에 따르면, “마쓰시마를 울릉도와 우산도 중 어느 쪽에 비정할지 차이는 있어도 마쓰시마가 조선 소속 혹은 조선의 관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³²⁾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모토는 1880년 2월 해군경으로 임명되자 무기 거래에서 성장한 재벌 오쿠라구미(大倉組)에 출자시키고 울릉도에서의 벌목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 사업에 해군 수송선 반조마루³³⁾(磐城丸)까지 이용해 인부 등을 수송했다. 에노모토는 설사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라 할지라도 실효적인 점유가 없는 한, 일본이 이 섬을 점유해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벌목 사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제3차 울릉도 침입은 에노모토가 일본 정부 조직과 상관없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관리의 울릉도 개척 권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 해군경이 된 에노모토는 이 사업에 해군 수송선을 사용시키고, 운반된 목재의 일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 사교장인 로쿠메이칸(鹿鳴館)에 사용되었다.³⁴⁾ 이처럼 울릉도로의 침략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일본 정부의 허위 공문

1881년 일본인들의 침입은 울릉도 수토관으로 파견된 삼척 영장에 의해 발견되었다. 조선 정부는 해금 정책으로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해

31) 北澤正誠, 앞의 사료.

32)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105쪽.

33) 山本修身, 앞의 「復命書」. 박병섭은 앞의 글(2010)에서 磐城丸를 이와키마루라고 했는데 반조마루로 수정한다.

34) 박병섭, 앞의 글, 2010, 220쪽.

무인도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수토관을 파견하고 있었다. 수토관의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세웠다. 하나는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다음해 울릉도를 조사시켰다. 또 하나는 예조판서 심순택이 6월(음) 일본 외무성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에 항의하는 서계를 보냈다. 서계는 1693년에 일어난 울릉도 쟁계 결과 일본이 그들의 울릉도 어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항의에 대해 외무대보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는 8월 처음 듣는 일이니 조사한 뒤 처리하겠다고 회답했다.³⁵⁾ 그런데 외무성은 울릉도에서 별목한 주도자가 18개월 전까지 바로 외무대보를 지냈던 에노모토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에노모토가 세와키의 권장에 따라 외무성 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마쓰시마 개척을 시작했던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많은 마쓰시마 개척 원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외무성은 해군경이 되었던 에노모토의 마쓰시마 개척을 말릴 이유가 없었으며, 관심을 가지고 그 행방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외무성은 조선 측이 지적했던 1693년에 일어난 일, 즉 ‘다케시마 일건’이나 섬의 소속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무성 지지과 출신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이소타케시마 각서』나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은 겐로쿠(元祿)기 ‘다케시마 일건’ 결과 1699년에 다케시마, 즉 울릉도의 영유를 포기하고 제1차 다케시마 도항 금지령을 내렸던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제2차 다케시마 도항 금지령의 경위도 밝혔다. 게다가 해군 수로국의 마쓰시마 조사 결과도 입수했다. 수로국은 측량함 아마기(天城)가 1880년 9월 한국인들이 울릉도라고 부르는 마쓰시마로 항행해 동쪽에 가박지(假泊地)를 찾았다. 수로부는 한국인들이 죽도라고 부르는 치쿠쇼(竹嶼), 영국명 Boussole Rock 및 북정서(北亭嶼)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쓰

35) 外務省資料 3門8類2項4 (3824로 약칭),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辰處分一件』; 송병기, 앞의 책, 153-154쪽.

시마 동쪽의 약도를 그렸다.³⁶⁾ 이들 자료에서 기타자와는 무토 등의 개척 원서가 말하는 마쓰시마는 조선 땅인 울릉도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1881년 8월 조사 결과를 보고서 『다케시마 고증(竹島考證)』 및 「다케시마 관도 소속고(竹島版圖所屬考)」에서 오늘날의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일건 당시 칭했던 다케시마이며 옛날부터 일본 땅이 아니라고 썼다.

이 보고서에서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9월 조선 측에, “조사해보니 과연 그런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철수해 돌아갔다”, “뒤로는 다시 금령을 신칙하여 양국의 신의를 돈독히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³⁷⁾ 그러나 다음해에도 일본인들이 침입했으므로 일본 정부의 위의 회답은 허위 공문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허위 공문을 의도적으로 보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침입자들이 곧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확신하고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된다. 외무성은 울릉도 침입의 주도자인 에노모토에게서 사업 철수의 다짐을 받아 그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의 허위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에노모토와 오오쿠라구미는 외무성의 방침에 따랐는지, 앞의 야마모토 「복명서」에 따르면 울릉도 사업을 1881년 10월에 그만두고, 해군성의 용선 가이소마루(廻漕丸)를 이용해 벌목한 수목 및 인부 등을 모두 일본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야마모토는 그 이유를 예상과 달리 이익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복명서」에 기록했는데 이는 의문이다. 일본인들은 다음해에도 벌목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벌목 사업에는 충분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에노모토가 사업을 그만둔 이유는 외무성 방침에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36) 「水路報告」 제33호, 1880년 9월 13일; 海軍水路局, 『水路雜誌』 제41호, 1880, 34-35쪽. 아마기함이 가막지를 찾았다는 것은 군함이 울릉도에 정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37) 外務省資料 3824, 앞의 사료; 유미림·박배근, 앞의 글, 12쪽.

5. 임오군란과 일본 정부의 울릉도 탈취 기도

1882년 에노모토 관계자 외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마쓰시마에서 별목을 계속했다.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섬에서 많은 한국인 및 일본인 침입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조사했다. 이규원이 도방청(道方廳, 현재 도동)에서 만난 일본인들의 출신지는 일본 도카이도(東海道), 난카이도(南海道), 산요도(山陽道) 등이며, 그만큼 마쓰시마 침입의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조선 정부는 다시 일본 측에 항의했다. 1882년 6월(음) 예조판서 이회정은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다시 서계를 보내, 일본인들이 여전히 별목을 하고 바뀐 게 없는 원인이 일본 정부가 금법을 세우지 않은 데 있다고 항의했다.³⁸⁾

조선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유는 때마침 일본에 대해 불만을 가진 군인들이 7월 일본 공사관을 불태운 임오군란이라는 중대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임오군란 사건을 문책하는 사절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파견할 것과, 울릉도도 관계되는 「조선 정부에 대한 요구 건(朝鮮政府ニ對スル要求ノ件)」을 결정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조선 정부는 사건을 사죄한다.
 - ② 15일 안에 흉도(兇徒)를 처벌한다.
 - ③ 조난자에게 보상한다.
 - ④ 조약 위반 및 일본의 출병 준비 비용을 배상한다.
 - ⑤ 조선 정부는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 병사들을 마련한다.
 - ⑥ 일본 상인들을 위해 안전한 곳을 개시장(開市場)으로 정한다.
- 다음 세 가지 조항은 구두로 전한다.

38) 外務省資料 3824, 앞의 사료; 유미림·박배근, 앞의 글, 20쪽.

- ⑦(만약 조선 정부의 과실에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거제도 혹은 **마쓰시마를 우리나라에 양도하고**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한다.
- ⑧(만약 조선 정부 안에 흉도를 비호하는 주모자를 찾아냈을 때는) 주모자를 파직해 처분한다.
- ⑨저쪽 정상(情狀)이 너무 무거우면 강상(強償) 처분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으로 적절히 한다.

위와 같이 조선 정부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일본 정부는 ‘강상 처분’으로 거제도나 마쓰시마(울릉도)를 탈취할 작정이었다. 또한 참의(參議)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협상이 긴박하다면 “**인천 원산 부산의 주요 개항장**”을 점거할 것을 건의했다.³⁹⁾ 이처럼 일본 정부는 마쓰시마를 탈취할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마쓰시마에 침입했던 일본인들을 철수시킬 생각이 없었다. 만약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로 된다면 침입자들은 오히려 섬 개척의 초석이 될 만큼 유용한 존재가 될 것이다.

조·일 양국은 잘 알려져 있듯이 8월 30일 제물포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条規續約)을 조인했으며, 일본이 임기응변으로 마쓰시마 등의 양도를 요구할 기회가 없었다. 이 조약의 비준과 일본에 사과하기 위해 박영효가 수신사로서 파견되었다. 일본에서 박영효는 아무 진전이 없는 울릉도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자 외무경 이노우에는 마지못해 대처안을 만들고 태정대신에 상신했다. 이노우에는 조선 수신사의 역할을 폄하하기 위해 수신사가 귀국한 후 마쓰시마 도항 금령을 내릴 것과 침입자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해 승인을 얻었다. 이 건의에 따라 태정대신은 1883년 3월 사법경 오오키 다카토(大木喬任)에게 당해 섬에서 밀상(密商)을 저지른 자들은 ‘일한무역규칙(日韓貿易規則)’에 비추어 처벌하도록 각 재판소장에게 내훈(內訓)할 것을 명했다. 또 내무경 야마다 아키요시

39) 「朝鮮京城事變ニ付 辨理公使 花房義質へ訓條案」, JACAR Ref. No. A03023634800, 9-13 고마.

에게는 ‘일본이 마쓰시마라고나 다케시마라고 칭하는 조선 울릉도’ 로 일본인이 상륙하면 안 된다는 유달(諭達)을 지방장관에게 하달할 것을 명했다.⁴⁰⁾ 일본 정부는 드디어 제3차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적당한 구실만 있다면 일본인들이 개척을 시작했던 마쓰시마 등을 탈취할 생각을 가지고 임오군란을 처리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항의에 제대로 응할 생각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마쓰시마 등을 탈취할만한 구실을 만들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수신사 박영효의 항의에 마지못해 대처하고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결정해 일본인들을 쇄환할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인들의 쇄환은 10월 실행되었다.

한편, 앞의 시모무라 린파치로와 사이토 시치로베에(齊藤七郎兵衛) 등은 죽은 세와키의 뒤를 이은 무역사무관 데라미 기이치(寺見機一)로부터 에노모토 앞 소개장을 받아 마쓰시마에서의 벌목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임오군란에 따른 사태에서 사업을 중지해야 했다. 그의 묘지 혹은 시모무라 가문이 소장하는 권축(卷軸)은 “동 15년[1882년] ‘조선의 변(變)’을 만나 본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했다” 고 기록했다. ‘조선의 변’이란 임오군란을 말하며, 본래 뜻이란 1878년에 세운 “마쓰시마, 일명 무인도로 항행해 개간하고 목재를 수출할 계획” 을 말한다.⁴¹⁾

6. 만국공법과 조약을 둘러싼 논의

일본은 1883년 3월 ‘일본이 마쓰시마라고나 다케시마라고 칭하는 조선 울릉도’ 로의 도항을 금지했으나, 이 금지령을 모르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이 계속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이 해에 농민들을 모집해 울릉도

40) 外務省資料 3824, 앞의 사료.

41) 松澤幹治, 앞의 글, 140 및 143쪽.

개척을 시작했다. 이 개척민들을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간 관리들은 일본인 침입자들을 발견해 그들을 문책했다. 이 일을 야마모토 「복명서」가 기록했는데 이를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올해[1883년] 음력 4월 2일 조선국 고관이 병사 비슷한 자를 약 백 명 거느리고 그 섬[울릉도]에 와서 일본인들에게 크게 무위를 보인 듯하다...[중략] 그때도 조선인과 응대했는데, 답변을 한 자는 후지쓰 마사노리(藤津政憲)가 설립한 아사히구미(旭組) 부지배자인 에히메 현(愛媛縣) 사람 우치다 히사나가(内田尙長)라는 자였고, 그 응대한 뜻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조선인 왕, 이 섬은 우리나라 **영토이므로**①) 외국인이 함부로 도항 상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상륙하고, 더구나 수목 등을 벌채함은 일본 정부의 명령이나 혹은 몰라서 도항한 것이나.

일본인 왕, 일본 정부의 명령은 아니지만 만국공범에 따르면 무인도는 발견한 자가 3년간 그 땅에 거주할 때는 소유권이 있으니 수목을 벌채하더라도 무방하다.

조선인 왕,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귀국 정부에 조복(照覆)할 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남김없이 이 섬을 떠나고 장차 도항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면**②) 귀국 정부에 조복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것이다.

일본인 왕, 이 섬이 귀국 영토라는 것이 피차 정부의 **조약에 있으면** ③) 배편이 있는 대로 떠날 것인데 이미 벌채한 재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선인 왕, 그것은 가져가도 된다.42)

최근 이 대화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 이는 나아가 1880년대 당시 일반 일본인들이 조선과 일본과의 사이에 ‘국경조약’ 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발전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다음에 이 문제를 검토한다.

위의 대화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① ‘영토이므로’, 일본어 원문은

42) 박병섭, 앞의 책, 95-96쪽(한국어). 237쪽(일본어).

‘処領ナレハ[なれば]’, ② ‘승낙한다면’, 원문은 ‘承諾スレハ[すれば]’ ③ ‘조약에 있으면’, 원문은 ‘条約アレハ[あれば]’ 이다. 이 중에서 논란이 된 번역은 ③ ‘조약에 있으면’ 이다. 최철영·유미림은 위의 박병섭의 번역을 따랐는데,⁴³⁾ 이성환은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위의 ③을 일단 ‘조약이 있으므로’ 라고 번역한 후, “설사 양보를 하여 ‘조약이 있으면’ 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것은 완전한 가정법의 대화가 아니라 조선 관리의 주장을 수용하는 의미의 가정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⁴⁴⁾

문제가 되는 일본어 ‘…ハ[…ば]’ 를 먼저 문법적으로 검토한다. 일본 고어(古語)사전에서 ‘…ば[ba]’ 를 보면 이연형(已然形)에 붙는 경우 다음 3가지 용법이 있다. (1)…때는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어느 조건이 구비되면 언제나 다음에 말하는 사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경우의 조건을 표시한다, (2)…했다가; 이미 행해진 일을 말하고 그 사태, 상황에서 실현되었던 것을 말한다, (3)…이므로; 이유, 원인을 표시한다.⁴⁵⁾

위의 글에서 이들 용법에 해당하는 ‘…ハ[…ば]’ 를 찾으면 ① ‘処領ナレハ[なれば]’ 의 용법은 원인, 이유를 표시하는 (3)이며, 번역은 ‘영토이므로’ 가 된다. ② ‘承諾スレハ[すれば]’ 의 용법은 (1)이며, 번역은 ‘승낙한다면’ 이 된다. ③ ‘条約アレハ[あれば]’ 의 용법은 (1)로 해석하고 ‘조약에 있으면’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분류 (3)도 어색하지만 문법상은 가능하다.

다음은 논란이 된 부분③의 문맥을 검토한다. 일본인들이 만약 조·일 양국 간에 울릉도에 관한 조약이나 약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조선 관리가 단호하게 ‘이 섬은 우리나라 영토’ 라고 주장했을 때

43)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3권 4호, 2018, 274쪽, 각주 95).

44) 이성환, 2019, 앞의 글, 169쪽.

45) 三省堂編修所, 『明解古語辞典』, 1963, 三省堂.

우치다는 만국공법을 구실로 그 조약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조선 관리들에게 항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을 바꾸면 일본인들은 조약이나 약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국공법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다. 일본인 연구자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조선 관리의 단호한 자세를 보고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확인하듯이 ‘피아 정부 사이에 조약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만국공법보다 두 나라 사이의 약정을 우위로 생각했던 것이다” 46)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맥상으로 보아 논란이 된 부분은 이케우치, 박병섭 및 이성환의 양보한 해석이 옳을 것이다.

한편, 일본인 우치다가 “만국공법에 따르면 무인도는 발견한 자가 3년간 그 땅에 거주할 때는 소유권이 있으니 수목을 벌채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일본인들이 전년까지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치다가 만국공법을 거론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당시 일본은 만국공법을 수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지되지 않았던 단어이다. 이 단어를 우치다는 네덜란드에서 국제법을 배운 에노모토의 영향을 받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에노모토 등은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설령 조선 영토라 할지라도 이 섬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가 없는 한,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를 계속한다면 일본 영토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즉 에노모토 등은 무주지 선점을 명목으로 마쓰시마를 탈취하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46) 池内敏, 『日本人の朝鮮觀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215쪽.

7. 맺음말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된 세와키 히사토가 향해 도중에서 본 마쓰시마(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믿게 된 기본 자료는 그가 번역한 『콜튼 씨 만국도지』에 수록된 「콜튼 씨 일본지도」일 것이다. 그는 마쓰시마를 개척하는 중요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그 설명을 듣고 세와키의 뜻을 실행한 자가 러시아 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 중장이다. 그는 1878년 세와키의 말을 듣고 러시아에서 귀국하자마자 해군 수송선 다카오마루를 마련해 치카마쓰에게 마쓰시마를 조사시켰다. 조사결과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그 후 에노모토는 외무성에서 차관급인 외무대보까지 지냈으므로 그는 관심을 가지는 마쓰시마에 관해 외무성의 모든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마쓰시마의 비정에 관해 외무성에서 논쟁이 있는 것이나,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인지 의문이 있다는 것 등을 알았을 것이다.

외무성에서는 마쓰시마를 조선 울릉도와 우산도 중 어느 쪽에 비정할지 차이는 있어도 마쓰시마가 조선 소속 혹은 조선의 관여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모토는 1880년 2월 해군경으로 임명되자 마쓰시마에서 벌목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 사업에 오키라 재벌을 참가시키고 해군 수송선도 이용시켰다. 마쓰시마에서 벌목한 고급 목재는 일부를 외무성의 외교 사교장인 로쿠메이칸 건설에 사용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은 조선 정부가 3년마다 파견하는 울릉도 수토관에 의해 1881년에 적발되었다. 조선 정부의 항의를 받은 일본 측은 마쓰시마의 소속을 본격적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도항자들이 말하는 마쓰시마는 에도 시대에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섬이며, 1696년 및 1837년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에 의해 도항이 금지된 조선 땅인 울릉도임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마쓰시마 침입의 주도자인 에노모토 등의 도항을 통제하

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지 조선에 대해 도항자들은 모두 철수했다. 도항 금령을 신칙하여 양국의 신의를 돈독히 하겠다고 회답했다. 그러나 1882년에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발견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공문은 허위가 되었다. 실은 에노모토 관계자들은 마쓰시마 도항을 중지했으나, 벌목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결과 일본 정부가 파악 못했던 자들이 마쓰시마로 도항했던 것이다. 조선 정부는 일본 측에 다시 항의했으나 때마침 중대사건인 임오군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조선 측 항의에 대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오군란의 처리를 이용해 마쓰시마나 거제도의 탈취를 기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럴만한 빌미를 만들 수 없었으며 마쓰시마의 탈취 기도는 실패했다. 울릉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선 측은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마지못해 마쓰시마의 영유 기도를 포기하고 박영효가 귀국한 후, 1883년 3월 간신히 제3차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금지령을 모르는 일본인들의 마쓰시마 도항이 이 해도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 아사히구미 부지배자인 우치다 히사나가는 울릉도에서 조선 관리로부터 벌목을 힐난받자 항변하고, 만국공법에 따르면 무인도는 발견한 자가 3년간 그 땅에 거주할 때는 소유권이 있으니 수목을 벌채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지되지 않았던 단어이다. 우치다는 만국공법에 익숙한 에노모토의 영향을 받아 그 단어를 알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에노모토는 실효적인 점유가 보이지 않는 마쓰시마에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무주지 선점을 구실로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고 벌목을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조선 정부의 울릉도 수토 정책 및 개척 정책에 의해 실패했으며 일본 정부는 제3차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세와키에서 시작된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마쓰시마 침략이 끝났다.

【참고문헌】

- 구양근,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한일관계사연구』 9호, 1998
- 김수희,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독도연구』 제19호, 2015
-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2호, 2012
- _____,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연구』, 35집, 2010
- _____,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박지영, 「아마구치현 주민의 울릉도 침탈사건에 대한 연구」, 『독도연구』 28호, 2020
- 박한민,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시키현」, 『영토해양연구』, 제23권, 2022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관, 2010
- 송희영,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 19호, 2015
- 유미림·박배근, 「1883년 태정관의 울릉도 도항금지 전후 조·일 교섭과 울릉도 도항 일본인의 법적 처리」, 『영토해양연구』, 제21호, 2021
- 이성환, 「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64권 제2호, 2019
- 정영미, 『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쟁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3권 4호, 2018
- 加茂儀一, 『榎本武揚』, 中央公論社, 1988
- 岡田利七, 『船名録』, 丸屋善七, 1881
-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 瀬脇壽人, 『烏刺細宍斯杜屈見聞雜誌』
- 武藤三代平, 「明治政府における榎本武揚の位置づけ」,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論集』 16号, 2016
- 北澤正誠, 『竹島考證』 下, 1881
- 朴炳涉, 「山陰地方民の蔚陵島侵入」,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30號, 2009
- 山口県, 『蔚陵島一件録』, 1884, 山口県文書館 所蔵(行政文書 戦前 A 土木 25)
- 三省堂編修所, 『明解古語辞典』, 1963
- 松澤幹治, 「松島開拓願を出した下村輪八郎と『西海新聞』「松島日記」」, 『第4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総務部, 2020

手塚律蔵·佐波銀治郎, 『格尔屯氏 萬國圖誌』, 1862

鈴木大亮, 『浦塩斯德紀行』, 開拓使, 1879

鈴木忠, 『佐波銀治郎の生涯』, 佐倉歴史顕彰会, 1991

池内敏, 『日本人の朝鮮觀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外務省,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外務省資料 3門8
類2項4

榎本武揚, 『シベリア日記』, 講談社, 1877

海軍省, 『海軍省報告書』

海軍水路局, 『水路雜誌』 제41호, 1880

<日本語要約>

日本の第3次鬱陵島侵入事件と鬱陵島奪取の企図

朴炳涉

19世紀後半、日本人の第3次鬱陵島(松島)侵入の契機をつくったのは、ウラジオストックで貿易事務官を務める瀬脇壽人であった。本稿は第一に、彼が松島を日本領と信じるようになった基本資料が、彼の翻訳した「コルトン氏日本地圖」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第二に、瀬脇の勧めに応じてロシア公使の榎本武揚中将周辺の者たちが松島での伐木事業を始め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榎本は、1880年に海軍卿になるや、海軍の輸送船を使用し、財閥の大倉組を参加させ、松島での伐木事業を大々的におこなった。日本人の鬱陵島侵入を発見した朝鮮政府は1881年、日本政府へ抗議するとともに鬱陵島の開拓を模索し始めた。抗議を受けた日本政府は、島へ渡航した者たちはすでに撤収したと回答し、再発防止を約束した。しかし、1882年も日本人の侵入が続いたので日本政府の回答は虚偽であった。第三に、なぜ日本政府は虚偽の回答をおこなったのか、日本の対処を分析する。朝鮮政府は再び日本人の鬱陵島侵入に抗議したが、日本政府はほとんど対処しなかった。第四に、その原因が壬午軍乱にあり、日本政府はこの事件を利用して松島を奪取しようと企図し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結局、日本政府は松島を奪取する口実を作れず、松島の領有をあきらめて1883年に第3次鬱陵島渡航禁止令を出した。しかし、この禁止令を知らずに多くの日本人が松島へ渡航した。そうした日本人を責める朝鮮官吏に対し、ある日本人は万国公法を主張して伐木を正当化しようとした。この主張は榎本に由来するようであり、榎本は無主地先占を名

分に松島を奪取しようとしたと考えられる。第五に、日本人の主張の翻訳文をめぐる研究者間の論争にもふれるなど、本稿は日本の第3次鬱陵島侵入事件にて残る課題を解明する。

キーワード: 瀬脇壽人, 「コルトン氏日本地圖」, 榎本武揚中將, 松島=鬱陵島,
壬午軍亂, 万国公法

<Abstract>

Japan's Third Ulleung Island Invasion Incident and Intention to Take Ulleung Island

Park, Byoung-sup

The person who created the opportunity for the third Japanese invasion of Ulleung Island (Matsushima) in late 19th century was Sewaki Hisato, a trade official in Vladivostok. First of all, this study reveals that the basic material that led him to believe that Matsushima is Japanese territory is “Mr. Colton’s Map of Japan,” which he translated. Second, according to Sewaki’s recommendation, it is revealed that people around Lieutenant General Enomoto Takeaki, a Russian minister, started a logging business in Matsushima. When Enomoto became Lord of Navy in 1880, he conducted a large-scale logging business in Matsushima using a naval transport ship and involving the conglomerate Okura-gumi. In 1881, when the Korean government discovered that Japanese had invaded Ulleung Island, it protes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egan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 In response to the protest, the Japanese government replied that those who had traveled to the island had already withdrawn and promised to prevent a recurrenc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s answer was false because Japanese invasions continued in 1882. Third, analyze Japan’s response to why the Japanese government gave a false reply. The Korean government again protested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of Ulleung Island, but the Japanese government took little action. Fourth, the cause lies

in the Imo military uprising, and it is reveal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is incident to try to take Matsushima. Eventually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not make an excuse to seize the island, gave up to take the island, and in 1883 issued the third ban on travel to Ulleung Island. However, many Japanese traveled to the island for logging without knowing about the ban. When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blamed them, some Japanese tried to justify the logging by citing international law. This assertion seems to have originated with Enomoto, and it is thought that Enomoto tried to seize Matsushima by 'rule of occupation' for terra nullius. Fifth, the controversy among researchers over the translation of the content of Japanese assertion is also examined, and this paper elucidates the remaining tasks in Japan's 3rd invasion of Ulleung island.

Key words: Hisato Sewaki, Mr. Colton's Map of Japan, Lieutenant General Takeaki Enomoto, Matsushima = Ulleung Island, Imo military uprising, International law

이 논문은 2022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2월 0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2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